

농어촌공사, 제주 세화항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쇠락한 어촌 경관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종)는 '세화마을협동조합'과 함께 '2025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 상은 UN-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한국경관학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우수한 도시·지역 경관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경관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 공모전이다.

수상작인 '숨비, 바다가 숨 쉬는 곳 - 제주 세화항'은 쇠락한 어촌에 문화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자생력을 갖추게 했

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숨비'는 해녀가 물질을 마친 후 내쉬는 숨소리를 뜻하며, 공사는 이를 주제로 세화마을의 고유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과거 세화리는 초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떨어가던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과 어촌뉴딜300 사업(해양수산부)을 연계해 경관 개선을 추진했다.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을 공



농기평, 무병묘 기술로 과수 산업 판 바꾼다

무병묘로 과수 농가 경쟁력 강화 기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사업화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수 무병묘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와 외국산 과일 유입 증가로 국내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수의 높은 바이러스 감염률은 주요 문제로 꼽힌다.

2023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

르면 사과 농가의 97.3%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염은 사과·배·복숭아의 무게를 18~52% 감소시키고, 사과·포도의 색소 함량을 최대 80%까지 떨어뜨려 생산성과 상품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관 연구기관인 국립종자원은 2020년부터 본 연구과제를 통해 과수 무병묘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무병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 주요 5대 과종의 무병묘 공급률은 2020년 1.0%에서 2024년



▲ 무병묘 효과 분석 사진(농기평 제공)

농정원, 한국공공브랜드대상 2관왕

'갓생 캠페인' 정책 브랜드 부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11월 28일 열린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정책 브랜드 부문 대상과 국가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책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은 '레디, 갓생! 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갓생 캠페인)'은 청년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활용해 농업·농촌을 도전과 체험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기획한 청년

참여형 캠페인이다. 심사위원단은 "청년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정책 메시지와 성공적으로 접목했고, 현장 중심 운영 방식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국가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개식용종식 교육·홍보 캠페인'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식용종식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개 사육농가 조기 폐업을 지원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농작물·농업시설물 한파 대비 관리 당부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권 한파 예보

해 피해를 방지한다. 농촌진흥청은 법정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25.11.15.~26.3.15.)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협업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상습 피해 지역 현장지도 강화, 농업인 대상 대설·한파 대응 요령 재홍보 등 협업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 발생 시 현장 기술지원단을 신속하게 파견해 피해 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이번 주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 영하권 한파, 강풍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농업 분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농가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 사전 점검과 보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장비를 사전 확보하고, 작업 동선도 점검한다.

노지

월동작물

농가는

기온

강하

로

작물

이

는

비

또는

눈

영하

기온

5도

C

안

팎

으로

내려

온

차

로

내려

온

차